

광주FC “유럽 축구 배우고 더 큰 감동 드리겠다”



GWANGJU FOOTBALL CLUB

2017 시즌 준비 위한 전훈 돌입

오늘 광양서 예열... 16일 포르투갈행

훈련 효율성·효과 극대화 위해 낙점

광주 FC가 포르투갈을 ‘약속의 땅’으로 선택했다.

광주는 지난해 8위에 오르며 2년 연속 클래식 잔류에 성공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쟁한 클래식 팀들을 상대로 매서운 실력을 발휘한 선수들은 12월 휴식기를 보낸 뒤 2017시즌을 위한 준비에 들어

갔다.

1차 몸 풀기 장소는 광양이다. 2일 광주로 집결해 광양으로 이동한 선수단은 3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나선다. 몸 풀기를 끝낸 선수들의 다음 행선지는 포르투갈 알가르브다. 오는 16일 포르투갈행 비행기에 오르는 선수들은 내달 10일 귀국한다.

2017시즌을 위한 마지막 점검 무대는 나주다. 광주 선수들은 2월16일부터 나주 공설운동장에서 주전 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3차까지 진행되는 캠프의 핵심 포인트는 포르투갈이다.

광주는 앞서 중국 상하이, 일본 시즈오카, 태국 방콕 등을 해외 전지훈련지로 선택했다. 멀리 유럽까지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질적인 재정난 탓에 일본행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훈련의 효율성과 훈련 효과 극대화를 위해 좋은 환경과 시설의 포르투갈을 낙점했다.

광주는 중국과 일본 캠프에서 잊지 못할 헤프닝들을 겪었다.

중국 캠프에서는 연습 경기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여러 차례 가슴을 쓸어내렸다. 거친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심판을 폭행하면서 연습경기가 중단된 적이 있다. 또 상대 선수의 발에 오른쪽 목을 맞은 미드필더 이한샘이 큰 충격을 받아 심폐 소생술까지 하는 아찔한 경험도 있었다.

브라질 캠프를 추진했던 2014년에는 주변의 반발에 막혀 일본 시즈오카로 발길을 돌렸지만 40년 만의 폭설로 눈밭에서 해외 전지훈련을 소화하는 등 ‘고난의 캠프’가 계속됐다.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겨울 캠프의 우선 목표인 만큼 광주는 포르투갈로 걸음을 하

게 됐다.

남기일 감독은 시즌이 끝난 후 축구의 본고장이 유럽을 다녀오며 새 시즌에 대한 구상을 했다. 전지훈련지 후보로 포르투갈의 가치를 확인하고 새로 영입할 공격 자원 후보들도 살펴봤다.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고 다양한 포메이션을 실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습 경기는 캠프의 가장 중요한 일정 중 하나. 유럽 클럽팀들을 상대로 연습경기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포르투갈 캠프의 장점이다.

광주가 어렵게 선택한 포르투갈을 ‘약속의 땅’으로 삼아 또 다른 감동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다음 권경원

중 리그 텐진 취안젠 이적
이적료 132억 ‘한국인 2위’



아랍에미리트 프로축구 알아흘리에서 뛰었던 미드필더 권경원(25·사진)이 중국 프로축구 슈퍼리그 중 리그 텐진 취안젠으로 이적한다.

중국 매체 ‘티탄+’ 등은 2일 “텐진이 손흥민(토트넘)에 이어 한국인 축구선수로는 두 번째로 높은 이적료 1100만 달러(이하 현재환율 기준 132억5500만원)에 권경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권경원의 이적료는 2015년 여름 레버쿠젠(독일)에서 토트넘(잉글랜드)로 옮긴 손흥민의 이적료 2200만 파운드(약 328억원)보다는 적다. 그러나 2012년 퀸스파크 레인저스(잉글랜드)로 옮긴 박지성(500만 파운드·74억원), 2012년 스완지시티(잉글랜드)로 옮긴 기성용(600만 파운드·89억원)의 이적료 추정치 등을 뛰어넘는다.

권경원의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연봉은 300만 달러(36억1500만원)로, 급여총액은 1500만 달러(180억7500만원)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권경원은 2017시즌 슈퍼리그에 처음 도전하는 텐진에서 등번호 21번을 달고 뛰 예정이다. 권경원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아흘리 구단주 등에게 작별인사를 건넬기도 했다.

2012년 우선지명으로 전북에 입단한 권경원은 189cm에 84kg의 다부진 체격과 많은 활동량이 장점인 수비형 미드필더다. 2013년 전북 현대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권경원은 2015년 이적료 300만 달러(약 36억1500만원)에 알아흘리로 이적했다.

특히 2015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알힐랄(사우디 아라비아)과 준결승 2차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팀의 3-2 승리를 이끌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권경원은 지난해 여름 이적시장에서 아스널,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영입 물망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텐진은 지난해 9월부터 권경원 영입 작업을 시작했고, 당초 800만 달러(96억4000만원)로 예상했던 이적료는 1100만 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짐만 싸는 석현준

타기 언론 “FC포르투 컴백”



타기 프로축구 트라브존스포르에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 공격수 석현준(26·사진)이 또다시 팀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타기 언론 fa-natic닷컴은 2일 “트라브존스포르가 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올 시즌 16경기에서 단 1골에 그치며 실망스러운 성적을 냈다. 득점을 기록한 상대 팀도 5부리그 팀이었다. 석현준은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경기 막판 교체 출전되거나 결정하고 있다.”

트라브존스포르가 계약을 하지할 경우 석현준은 원소속팀인 포르투갈의 FC포르투로 복귀해야 한다. 석현준은 2009년 AFC 아약스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뒤 FC 흐로닝엔, CS마리타루, 알 아흘리, CD니시오날, 비토리야FC, FC포르투, 트라브존스포르 등 수많은 팀의 유니폼을 입었다.

/연합뉴스



지루 ‘전갈킥’ 환상의 골 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FC와 크리스탈 팰리스 FC의 경기에서 아스널의 올리비에 지루(가운데)가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 아스널은 지루와 알렉스 아이오버의 득점에 힘입어 크리스탈 팰리스에 2-0으로 완승했다. /연합뉴스

첼시 1위 도약... 2~6위 승점 7점 차 혼전

반환점 돈 EPL

리버풀 등 전통 강호 선두권

첼시 13연승 ‘최다 연승 -1’

2016-201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정규리그 전체 38경기 가운데 절반인 19경기를 마치고 반환점을 돌았다.

프리미어리그는 올 시즌 개막 전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적인 명장 펠 그라디올라와 조제 모리뉴 감독이 나란히 라이벌 팀인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령탑에 오르며 불꽃튀는 경쟁을 예고했다.

그라디올라 감독은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를 세계 정상 팀으로 올려놓고, 바이에른 뮌헨을 독일 분데스리가 3연패로 이끌었다. 모리뉴 감독은 지난 시즌 첼시 사령탑에서 경질됐지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첼시를 EPL 정상에 올려 놓았다. 다시 지휘봉

을잡은 2014-2015시즌도 우승했다.

과르디올라나 모리뉴보다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탈리아 국가대표 감독을 지낸 안토니오 콘테는 첼시의 지휘봉을 잡았다. 여기에 지난 시즌 기적의 우승을 일군 레스터시티, 전통적인 강호인 아스널과 리버풀, 아쉽게 우승을 놓친 토트넘의 우승을 향한 진군도 기대를 모았다.

반환점을 돈 EPL은 첼시-리버풀-아스널-토트넘-맨체스터 시티-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순으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콘테가 이끄는 첼시의 도약이 가장 두드러졌다. 첼시는 지난 7라운드부터 무려 13연승을 달리며 EPL 사상 단일 시즌 최다 연승에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다. 첼시는 현재 승점 49로, 2위 리버풀보다 6점을 앞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첼시의 연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2년 만에 우승을 탈환할 수 있을지가 하반기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빅4’를 향한 경쟁 역시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2위 리버풀부터 6위 맨유까지 승점차는 7점에 불과하다. 매 라운드 가 끝날 때마다 순위가 뒤바뀐다. 주목을 받았던 과르디올라와 모리뉴 감독의 맨시티와 맨유는 각각 5.6위를 달리고 있다.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 작년 우승을 차지했던 레스터시티는 15위에 그치면서 작년의 우승이 기적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전반이다.

한편 첼시는 5일 오전(한국시간)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최다연승 기록에 도전한다. 첼시가 승점 10이 뒤진 4위에 위치한 토트넘은 2일 왓퍼드를 상대로 4-1로 승리하며 4연승 중이다.

첼시와의 경기를 앞둔 토트넘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첼시는 현재 힘들 정도로 잘 나가는 상황이다. 두 팀 모두에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경기를 하는 만큼 공격적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신감에 차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시우, PGA 세계 최고수들과 격돌

제이슨 데이·터스틴 존슨 등 32명과 토너먼트 승부

한국 남자 골프의 희망 김시우(22)가 세계 첫 대회에서 세계 최고수들과 대결을 펼친다.

김시우는 오는 6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 섬 카팔루아 리조트의 플래타이션 골프코스(파73)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SBS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전년도 투어 대회 우승자만 출전할 수 있다. 초청 선수도 없다. 올해 출전 선수는 32명뿐이다. 컷오프도 없다. 총상금은 무려 610만 달러에 이른다.

작년에는 이 대회에 한국인 출전자가 없었다. 2015년에 PGA투어에서 우승한 한국인이 없어서다. 김시우는 지난해 월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이 대회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한국인 출전은 2015년 배상문(31)에 이어 2년 만이다.

PGA 투어가 올해 ‘주목할 선수 30명’의 일원으로 꼽은 김시우는 이 대회 출전으로 체급이 작년부터 높아졌다. 출전 선수가 적고 컷오프가 없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 동반 라운드 맞대결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 명단에는 특급 스타가 즐비하다.

세계랭킹 1위 제이슨 데이(호주)와 세계랭킹 3위 터스틴 존슨(미국), 그리고 타이틀 방어에 나선 세계랭킹 5위 조던 스피스(미국)가 출사표를 냈다.

세계랭킹 2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세계랭킹 4위 헨리크 스텐손(스웨덴), 그리고 세계랭킹 7위 애덤 스콧(호주)이 출전하지 않지만, 필드를 달구기엔 충분하다.

특히 데이, 존슨, 스피스는 올해 세계 남자 골프 1인자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여 세계 첫 대회부터 양보 없는 격돌이 예상된다. 2015년 우승에 이어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플래타이션 골프 코스에 오면 필필 나는 세계랭킹 8위 패트릭 리드(미국)도 주목 대상이다.

/연합뉴스